



## 미 증시, FOMC 경계심리, 월마트 쇼크 등으로 하락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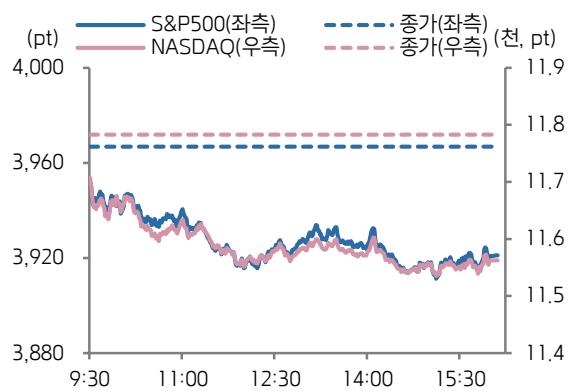
26 일(화) 미국 증시는 7 월 FOMC 경계심리가 시장참여자들의 방향성 베팅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월마트(-7.6%)의 실적 쇼크, IMF 의 미국 성장 전망 하향, 주요 실물 경제지표 동반 부진 등 실적 및 펀더멘털 상의 악재가 위험선호심리 위축시킴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71%, S&P500 -1.15%, 나스닥 -1.87%, 러셀 2000 -0.69%).

IMF 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준 4 월 3.6%에서 3.2%, 내년 전망치 역시 기준 3.6%에서 2.9%로 하향. 미국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4 월 3.7%에서 2.3%로 하향.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밝힘. 유로존은 기준 4 월 2.8%에서 2.6%로 하향, 가스 공급 관련 우려 지속되며 유로화 약세 촉발.

미국 7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는 95.7(예상치 97.0, 전월치 98.4)를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3 개월 연속 하락. 세부지표 중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65.3 을 기록하며 전월(65.8) 대비 하락. 집계측은 현재 여건 지수의 하락이 전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며 3 분기 초에 성장이 둔화했다는 신호라고 밝힘. 미국 7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0.0(예상치 -14, 전월치 -11)를 기록하며 개선된 점은 긍정적. 출하지수가 전월대비 상승 전환, 신규수주 지수는 전월대비 감소폭을 축소했으나 고용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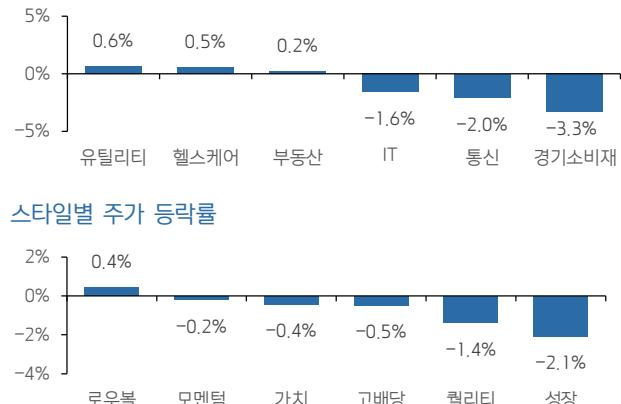
업종별로 유트리티(+0.6%), 헬스케어(+0.5%), 부동산(+0.2%) 등 경기 방어 섹터는 강세, 경기소비재(-3.3%), 통신(-2%), IT(-1.6%) 업종은 약세. 월마트(-7.6%)는 전일 장 마감 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 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 이어지며 급락, 타깃(-3.6%), 코스트코(-3.25%) 등 유통주 및 아마존(-5.22%) 역시 동반 하락.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14.1%)가 온라인 쇼핑 부진으로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히며 급락. 마이크로소프트(-2.68%)는 알파벳이 장마감 후 실적발표에서 2 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간외로 1% 내외로 추가 하락.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921.05  | -1.15% | USD/KRW   | 1,308.05 | -0.4%  |
| NASDAQ      | 11,562.57 | -1.87% | 달러 지수     | 107.21   | +0.68% |
| 다우          | 31,761.54 | -0.71% | EUR/USD   | 1.01     | +0.02% |
| VIX         | 24.69     | +5.69% | USD/CNH   | 6.77     | -0.02% |
| 러셀 2000     | 1,805.25  | -0.69% | USD/JPY   | 136.92   | +0.01% |
| 필라. 반도체     | 2,778.96  | -1.63%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614.14 | -1.81% | 국고채 3년    | 3.120    | -3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180    | -2.7bp |
| Eurostoxx50 | 3,575.36  | -0.8%  | 미국 국채 2년  | 3.053    | +3.7bp |
| MSCI 전세계 지수 | 612.23    | -0.86% | 미국 국채 10년 | 2.807    | +1.1bp |
| MSCI DM 지수  | 2,651.22  | +0.02%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87.08    | -0.33% | WTI       | 94.98    | -1.78% |
| MSCI 한국 ETF | 58.63     | -0.26% | 금         | 1735.7   | -0.08%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7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0.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7 월 FOMC 결과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확산 가능성
2. SK 하이닉스, LG 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3. LG 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물량 해제에 따른 수급 왜곡현상 발생 가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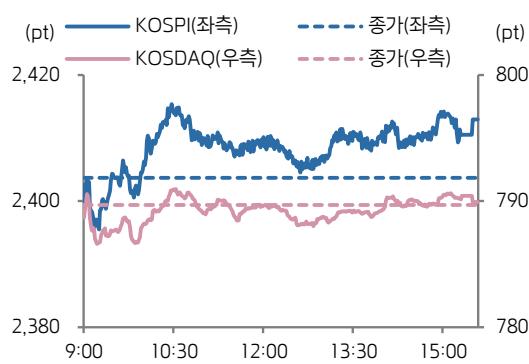
26 일 IMF 의 수정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긴축 충격 등이 '22년 경제성장을 전세계(4 월 전망 3.6%→3.2%), 미국(3.7%→ 2.3%), 유로존(2.8%→2.6%), 한국(2.5%→2.3%) 등 전지역에 걸쳐 하방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 물론 미국의 경우, 기술적 침체 혹은 얕은 침체(Mild Recession)를 시장에서도 그간 주가에 반영하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역사적인 침체 패턴과 달리 고용시장이 냉각되지 않아 깊은 침체(Deep Recession) 진입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다만, IMF 가 '23년 미국 성장을 전망(2.3%→1.0%)도 하향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깊은 침체 진입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3 분기 중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는 유효하지만, 향후 증시의 방향성(ex: 베어마켓 탈출 성공 여부 등)은 인플레이션 경로와 연준의 정책 강도에 의존적일 전망.

이와 관련해 28 일 결과 발표 예정인 7 월 FOMC 에서는 75bp 인상 여부이외에도 파월의장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현재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7 월 75bp 인상 이후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데이트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특성 상 인플레이션 경로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가이던스에 부합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할지 못할 가능성 존재. 그럼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할 경우 금번 회의에서 강도 높은 가이던스만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안도할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 증시는 IMF 의 성장을 하향 조정, 7 월 FOMC 경계심리 속 SK 하이닉스, LG 화학, 삼성전기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실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이는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할 전망. 또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2.7%, 시간외 -0.4%)와 알파벳(-2.3%, 시간외+5.6%)이 달러 강세 충격 등으로 예상보다 2 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시간외에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금일 국내 성장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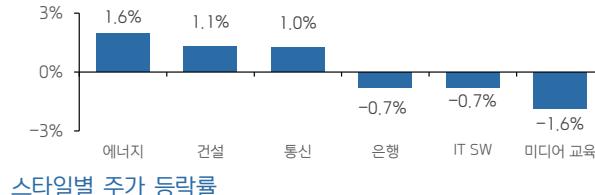
한편, 금일 LG 에너지솔루션 6 개월 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될 예정이며, 과거 1 개월 물량 해제 당일 주가는 1.9% 하락, 3 개월 수량 해제 당일 1.3% 하락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물론 8 월 12 일 MSCI 정기변경 이후 유동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편입비중 확대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이번에도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잠재적인 주가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1 개월, 3 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각각 175 만주, 187 만주였던것에 반해, 6 개월 물량 규모는 996 만주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현재 LG 엔솔 유동주식비율 약 10% 수준, LG 화학 대주주 지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 보호예수물량의 지분율 4.3%). 따라서 금번 보호예수해제 이벤트는 FOMC 경계심리와 맞물려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여타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수급 왜곡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중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을 수시로 확대될 전망.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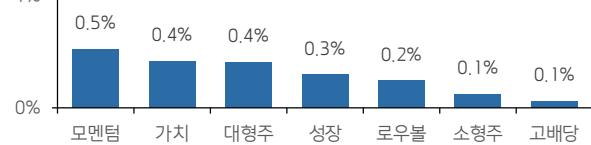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
|---|
| <p><b>Compliance Notice</b></p> <p>-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
| <p><b>고지사항</b></p> <p>-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과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p> |